

한·중 중간 구문의 통사론적 대조 연구

장희* · 원예**

목 차

1. 서론
2. 중간 구문과 유사 구문의 차이
 - 1) 한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능동문
 - 2) 중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
3. 한·중 중간 구문의 통사론적 대조 분석
 - 1) NP성분의 경우
 - 2) AP성분의 경우
 - 3) V성분의 경우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기저 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출현하여 함축된 행위주가 비한정적인 다수이면서 주어의 총칭적 속성을 기술하는 이른바 중간 구문이라는 문법 범주를 한국어와 중국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간 구문만이 가지는 의미적 특징을 검토한 다음 한·중 두 언어의 중간 구문의 통사론적 구조를 성분별로 나눠 대조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학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한국어 ‘이 문은 잘 열린다’와 같은 ‘NP+AP+VP’ 중간 구문과 중국어 ‘这辆车开起来真快’와 같은 ‘NP+V起来+AP’ 중간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NP, AP, V’의 문장성분에 따라 통사적 특징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한·중 중간 구문의 체계를 이해하고 언어

* 연변대학교 외국어학원 외국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학과 박사과정생

** 연변대학교 외국어학원 외국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학과 박사과정생

간의 대조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키워드: 한·중 중간 구문, 통사론적 구조, 속성, 총칭성, 한·중 대조 연구

1. 서론

중간 구문(Middle construction)¹⁾은 전통문법에서 서술어의 행위주가 자발적 행위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타자에 의해 피동적 상태를 갖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이중성을 겸한 구조로서 기저 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출현하여 행위주가 비한정적인 다수 개념으로, 의미상 존재하지만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주어의 총칭적 속성²⁾을 기술하는 구문 형식이다. ‘중간’이나 ‘중동’이라는 개념은 인도-유럽어에서 나타난 개념이었으며 1984년 영어 학자 Keyser 와 Roep er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이후, 학계에서는 ‘The door opens easily.’와 같은 형식상 능동이지만 의미상 피동인 중간 구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도 아래와 같은 중간성을 띤 구문이 존재한다³⁾.

- (1) ㄱ. 한국어: 이 종이는 잘 접힌다.
이 칼은 잘 깎인다.

임흥빈(1998:344)

- ㄴ. 중국어: 这辆车开起来很快。(이 차는 운전하기 매우 편하다.)

- 1) 언어학계에서 ‘중간 구문’ 외에 ‘중동태’, ‘중간태’, ‘중립피동’, ‘중간동사 구문’, ‘중립동사 구문’ 등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중간적 성격을 체현시키기 위해 ‘중간 구문’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2) 속성은 행위주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문장이 총칭성을 지닌다고 해석된다.
3) 본문에서 사용된 예문들은 ‘21세기 세종계획말뭉치’, ‘北京大学CCL语料库’, ‘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선정하였으며 출처를 따로 표기하였다.

这个问题很好解决。(이 문제는 해결하기 매우 쉽다.)

这本书好/容易/难读。(이 책은 읽기 좋다/쉽다/어렵다.)

黄莲花, 赵新建, 赵娜(2019:133)

(1ㄱ)은 형태적으로 피동사 ‘접히-’, ‘깎이-’에 의해 이루어진 피동문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의미적 측면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총칭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장 전체가 사건이 아닌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피동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종이’나 ‘이 칼’은 어떤 확정된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접히거나 잘 깎인다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잘 접힌다’, ‘잘 깎인다’는 속성 때문에 종이를 접는 사람이나 칼로 과일을 깎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접히는 종이’, ‘잘 깎이는 칼’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느끼게 한다.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1ㄱ)의 예문들은 모두 ‘주어(조사)+부사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해의 편의를 위해 ‘NP+AP+VP’의 형식으로 귀납하여 성분별 통사적 특징은 제3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1ㄴ)에서 ‘这辆车’, ‘这个问题’, ‘这本书’ 등과 같이 동작의 대상(受事)이 문장 주어 위치에 올 경우 중국어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⁴⁾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1ㄴ)의 예문들은 대상의 상태 변화나 결과를 서술하는 대신 대상 자체의 속성을 서술할 뿐더러 암축된 행위자는 ‘누구나’, ‘일반적으로’와 같은 비특정 행위자를 암시한다는 점에 중국어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과 구분된다. 즉 ‘이 차’, ‘이 문제’,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도가 빠르다는 속성,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속성, ‘잘/쉽게/어렵게 읽힌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 (1ㄴ)의 예문들은 모두 ‘-起来-’, ‘-好/容易/难-’ 등과 같은 형태적 표지를 가지고 있고 각각 ‘NP+V起来+AP’, ‘NP+好/容易/难+VP’의 형식으로 귀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NP+V起来+AP’ 형식을 중국어의 전형적

4)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은 서술어 동사의 모종의 영향을 받는 성분이 주어 위치에 출현한 반면 그 행위자 및 피동 표지가 통사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구문이다. (李知玟, 2011:131).

인 중간 구문으로 간주하여 다른 언어에서의 중간 구문과 대응시킨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전형적인 피동문이나 대상자 주어문과 별개의 범주 즉 범언어적으로 인정받는 중간 구문이라는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중간 구문에 대한 연구는 인도-유럽어나 영어권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주로 영어의 중동에 관한 연구 성과를 그대로 문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문법에서 가능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중간 구문에 대한 기술에서 ‘할 수 있는 입음/가능 피동’(최현배, 1937/1971), ‘불구 피동’(서정수, 1996), ‘비전형적 피동’(우인혜, 1997), ‘중간 구문’(천호재, 2002), ‘가능 속성’(시라이시, 2009), ‘가능 피동’(남수경, 2011), ‘총칭 피동문’(김운신, 2014), ‘속성 피동’(백정화, 2018), ‘총칭적 속성’(김지혜, 2018), ‘중간태 구문’(김현정, 2019), ‘중동문’(김영일, 2020)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 명칭과 개념이 다르게 기술되어 논의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구문을 다른 태의 하나로 설정하지 않고 피동문의 하위 범주, 즉 비전형적인 피동으로 간주해 왔다. 본고는 천호재(2002)의 능동문과 피동문의 중간성을 띤 구문을 중간 구문이라고 제시한 개념을 받아들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5)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37/1971.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우인혜, 『우리말 피동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7.
 천호재, 「한국어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2002.
 시라이시 치에미, 「한일 피동표현의 인지의미론적 대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 연구』, 서울: 월인출판사, 2011.
 김운신, 「국어 총칭 피동문의 유형과 의미」, 『언어학』, 2014.
 백정화,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피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지혜, 「한국어 비전형적 피동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현정, 「양태부사‘잘’과 한국어 중간태 구문- 일본어·터키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학』, 2019.
 김영일, 「한국어 피동사 피동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중국어의 중간 구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NP+ V起来+ AP’와 ‘NP+ 好/容易/难+ VP’ 라는 두 가지 구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은 宋国明(1992,1997)⁶⁾인데 그는 영어 중간 구문 ‘This book sells well’가 중국어에서는 ‘这本书卖起来很快’와 같은 ‘起来’ 구문과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纪小凌(1995), 戴曼纯(2001), 何文忠(2004), 曹宏(2004), 余光武, 司惠文(2008), 何元建(2010), 许艾明(2011), 蔡淑美, 张新华(2015), 胡旭辉(2019)⁷⁾등 많은 중국 학자들이 이론적 확장을 지속하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어에서는 중간 구문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陈立民(2006)⁸⁾은 영어 중간 구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구문 형식은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殷树林(2006)⁹⁾은 ‘NP+ VP+ 起来+ AP’ 구조가 중국어의 화제문(话题句)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 중간 구문의 대조 및 대응 연구는 주로 黄莲花, 赵新建, 赵娜(2019), 장염(2019), 양류(2022)¹⁰⁾등 논의에서 알 수 있다. 黄莲花, 赵新建, 赵娜(2019)는

- 6) 宋国明, 『句法理论概要』,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1997.
 7) 纪小凌, 「英汉中动句研究」, 香港中文大学硕士学位论文, 1995.
 戴曼纯, 「中动结构的句法特征」, 『外语学刊』, 2001(4):31-36.
 何文忠, 「中动结构的认知阐释」,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曹宏, 「论中动句的层级结构和语法关系」, 『语言教学与研究』, 2004(5):42-51.
 余光武, 司惠文, 「汉语中间结构的界定-兼论“NP+ V起来+ AP”句式的分化」, 『语言研究』, 2008(1):69-78.
 何元建, 「现代汉语中间句的句法结构」, 『汉语学习』, 2008(1):69-78.
 许艾明, 「基于语料库的英汉中动句式修饰语之对比研究」, 『西安外国语大学学报』, 2011(19):9-12.
 蔡淑美, 赵新华, 「类型学视野下的中动范畴和汉语中动句式群」, 『世界汉语教学』, 2015(29):196-210.
 胡旭辉, 「跨语言视角下的汉语中动句研究」, 『当代语言学』, 2019(1):83-103.
 8) 陈立民, 「论中动句的范围和结构-兼评曹宏的中动句研究」, 『北大中文论坛』, 2006.
 9) 殷树林, 「“NP+ (状) + V+ 起来+ AP”格式与英语中动句比较」, 『语言教学与研究』, 2006(1):59-65.
 10) 黄莲花, 赵新建, 赵娜, 「汉韩中动句对比及其成因分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12):120-139.
 장염, 김기석,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어“NP+ AP+ V” 중간 구문과 중국어

능동적 구조이면서 피동적 의미를 내포한 구문을 모두 중간 구문 범주로 규정하였고 전형적, 비전형적 한·중 중간 구문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양 언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미흡하다. 장염(2019)은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범언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간 구문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하고 한·중 중간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나, 통사적 구조, 의미적 특징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한 한계가 보인다. 양류(2022)는 주로 한국어 ‘고기는 잘 썰린다’와 중국어 ‘肉很好切’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어 ‘NP+好+VP’ 중간 구문과 한국어의 대응 표현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양 언어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차이점의 발생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한 가지 중간 구문 구조에만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제한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중 중간 구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피동문 범주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탈피하지 못한 점, 유형 분류에 치중하여 통사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 더군다나 양 언어 간 대조 연구는 전형성 및 비전형성이라는 유형론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중간 구문과 유사 구문과의 차이를 밝히고 두 언어의 중간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특징을 대조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중 중간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간 구문과 유사 구문의 차이

중간 구문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구문 형식이므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NP+V起来+AP’중간 구문, 『중국인문과학』, 2019(8):197-215.

양류, 「중국어‘NP+好+VP’중간구문과 한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인지언어학적관점을 바탕으로」, 『中語中文學』, 2022(90):257-280.

보면 언어마다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蔡淑美, 张新华(2015:199)¹¹⁾에서는 중간 구문은 중간 동사 전후에 형태 표지의 유무에 따라 독일어·프랑스어 등 인도-유럽어와 같은 형태 표지를 부착하는 형태형(形态型) 중간 구문과 영어·네덜란드어와 같은 형태 표지가 없는 통사 분석형(句法分析型) 중간 구문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아래와 같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가. 영어: Bureaucrats **bribe** easily. (Keyser&Roper 1984:384)

나. 독일어: Dieses Buch liest **sich** leicht. (Hundt, 2007:10)

This book reads easily. (Schafer 2008:1)

다. 프랑스어: Ce livre **se** lit facilement. (Hundt, 2007:10)

This book reads well. (Fagan 1992:9)

르. 한국어: 이 책은 잘 **팔린다**.

이 빨대는 잘 **빨린다**. (Park 1994:234)

口. 중국어: 这一类问题处理**起来**比较容易。(이런 문제는 처리하기 쉽다)

还是简体字**好**写。(아무래도 간체가 쓰기 편하다)

(北京大学CCL语料库)

예문(2가)와 같이 영어에서는 능동태와 동형의 동사 형태가 중간성을 구현하는 반면 (2나)의 독일어는 채귀대명사 ‘sich’를 통한 중간태를 표지하고 (2다)의 프랑스어는 채귀표지 ‘se’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어들과 대조적으로, 예문(2르)와 같이 한국어 중간 구문은 ‘-이-/-히-/-리-/-기-’ 등 계열 파생 접미사에 의한 중간 동사 형성이 특징적이며, 예문(2口)의 중국어 중간 구문에는 ‘-起来’, ‘-好/容易/难-’ 등의 후치나 전치 표지가 동사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된다. 중간성을 실현하는 방식은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유형론적 관점에서 예문(2)와 같은 다양한 언어에서의 중간 구문들은 모두 논리적 목적어가 문법적 주어로

11) 蔡淑美, 赵新华, 「类型学视野下的中动范畴和汉语中动句式群」, 『世界汉语教学』, 2015(29):196-210.

전위되는 공통적 특징이 보이며, 속성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처럼 예문(2ㄷ) ‘이 책은 잘 팔린다’에서 보듯이 한국어 중간 구문은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른 인구에처럼 재귀 대명사나 재귀 접어로 중간 구문을 표시하지 않고 피동 형태소 ‘-이-/-히-/-리-’ 등 계열 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피동문과의 변별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어 중간 구문은 예문(2ㄹ) ‘这一类问题处理起来很容易’와 같이 동작 대상이 문장 주어 위치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과의 변별성 문제가 제기되며, 동시에 의미적으로 피동태인 점에서 전형적인 피동문인 ‘被’ 구문과의 혼용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는 한·중 중간 구문의 성분별 통사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여 양 언어의 중간 구문과 유사 구문과의 개념적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능동문

김영일(2020)¹²⁾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론에서는 태(voice)를 분류할 때 화자의 시각에 따라 능동과 피동으로 대립되며, 한국어 피동문은 타동사에 ‘-이-/-히-/-리-/-기-’ 등의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피행위주를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해당 주어가 서술어 동사의 작용을 받아 변화를 겪는 피동적 사건 과정을 표현하는 구문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피행위주가 문장의 주어로 승격하여 타동사와 파생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적인 피동의 특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피동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속성의 의미를 표시하는 문장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 (3) 가. 능동문: 철수는 종이를 접었다.
 나. 피동문: 종이는 철수에게 접혔다.
 다. 중간 구문: 이 종이는 잘 접힌다.

12) 김영일, 「한국어 문법론에서 중동태의 설정을 위하여」, 『한말연구』, 2020(55):35-73.

13) 본문(3)(4)의 예문은 김영일(2020)에서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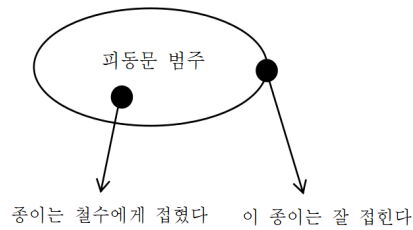
- (4) ㄱ. 능동문: 재단사가 가위로 옷을 자른다.
 ㄴ. 피동문: 옷이 재단사에 의해 가위로 잘린다.
 ㄷ. 중간 구문: 이 가위는 잘 잘린다.
이 옷은 잘 잘린다.

(3ㄱ)는 행위주(철수)가 실현되어 타동사 ‘접다’가 작용하는 ‘철수가 종이를 접었다’ 라는 특정한 사건을 나타내는 능동문이다. 이와 다르게 (3ㄴ), (3ㄷ)에서는 기저 목적어(종이)가 주어로 되고 타동사 ‘접다’에 파생 접미사 ‘-히-’와 결합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지만 통사적으로 지시관형사 ‘이’의 사용, 행위자의 함축, 상태 부사 ‘잘’의 사용, 현재 시제 사용, 보조사 ‘은/는’의 사용, 더불어 의미적으로 함축된 행위자는 ‘누구나’, ‘아무에게나’ 등과 같은 비한정적이고 비특정적인 다수이면서 문장 전체가 피행위주가 동사로 인해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피동 사건이 아닌 피행위주가 가지고 있는 총칭적 속성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피동문과 구분되어 본고의 연구대상인 중간 구문 범주에 속한다.

(4ㄱ)도 행위주(재단사)가 실현되어 ‘재단사가 가위로 옷을 자른다’ 라는 사건을 묘사하지만 (3ㄱ)와 다르게 ‘가위로’ 라는 부사어가 추가됨에 따라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구조를 가진 능동문이 된다. (4ㄴ)은 (4ㄱ)능동문의 전환으로 피행위주(옷)가 주어 자리로 승격되어 행위주(재단사)가 부사어 자리로 강등되어 타동사에 ‘-이-’가 결합하여 피동문이 형성되는데, 능동문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참여자, 동일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다르게 (4ㄷ)에서는 통사적으로 총칭성을 가진 행위자의 함축, 방식 부사, 지시관형사, 보조사 및 현재 시제의 사용 등에서 (4ㄴ)피동문과 전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의미적으로 ‘잘 잘린다’라는 속성을 서술하는데 이러한 속성의 대상은 능동문에서 ‘-(으)로’와 결합하는 도구의 의미역을 지닌 부사어(가위)일 수도 있고 피행위주 목적어(옷)일 수도 있다. 옷을 자르기 위해서는 특정 도구가 필수적이므로, 화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도구의 속성을 기술하거나, 해당 도구에 의

해 용이하게 절단되는 옷의 특성을 증점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속성을 나타내는 중간 구문은 주어의 의미역에 따라서 대상과 도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장염(2019)은 원형범주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중간 구문 형식은 피동문과 같이 피동 형태소 ‘-이-/-히-/-리-/-기-’가 결합하여 만든 중간 동사를 이용하여 구문이 형성한다는 점에서 피동문 원형 범주의 경계에 근접해 있다고 보지만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고 함축된 행위자가 총칭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다음 <그림1>과 같은 도식으로 도출하였다.



<그림1> 피동문의 원형범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 중간 구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중간 구문은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나 도구를 나타내며, 동작의 주체(행위자)가 표면 구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더불어, 이 함축된 행위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일반적 및 보편적 존재로써 해석된다는 총칭성¹⁴⁾을 지닌다. 중간 구문이 표현하는 속성은 구체적인 행위자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 자체에 내재된 보편적 특질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문장 전체가 총칭적 의미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14) 남수경(2011)은 이러한 총칭적 행위자 해석뿐만 아니라 ‘[나는/나한테는]’이 종이 잘 접힌다’ 와 같은 1인칭 경험주의 성격을 지닌 행위자도 실현이 가능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중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被动句),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

중국 학계에서도 ‘이 종이는 잘 접힌다’와 같은 동작의 대상인 명사구가 서술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닌 주어 자리에 출현하여 형식상 능동태 구조를 취하나, 실제 의미는 피동적 성격을 지닌 이른바 ‘중간 구문(中动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립어에 속하는 중국어는 엄격한 의미의 형태 표지가 존재하지 않아 문장의 형식적 능동, 의미적 피동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간 구문(中动句)의 특징을 단순히 ‘능동 형태로 피동 의미를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被’ 구문,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 등 관련 구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문장 유형이 지닌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李知珪(2008)¹⁵⁾에 의하면 대상자 주어문은 서술어 동사의 모종의 영향을 받는 성분이 주어 위치에 출현한 반면 그 행위자 및 피동 표지가 통사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구문이다. 龚千炎(1980)¹⁶⁾에서는 피행위주가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중간 구문(中动句), 피동문(被动句), 난이문(难易句)등을 모두 대상자 주어문(受事主语句)의 하위 범주로 규정하고 ‘被’ 표지의 유무에 따라 유표지과 무표지 대상자 주어문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피행위주가 주어로 승격되어 ‘被’ 표지를 동반한 구문은 피동문이라 하고, ‘被’ 표지가 결여된 구문은 대상자 주어문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중간 구문으로 다루어 왔던 ‘NP+V起来+AP’ 형식을 적용하여 능동문, 피동문 및 대상자 주어문과의 변별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¹⁷⁾

(5) ㄱ. 능동문: 我吃苹果。(내가 사과를 먹는다.)

15) 李知珪, 「현대 중국어 ‘NP+V起来+AP’ 형식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2008(52):109-130.

16) 一个主体发出某种动作行为叫“施事”, 一个客体收到某种动作行为叫“受事”。施事充当主语的句子可以叫做“施事主语句”, 受事充当主语的句子叫做“受事主语句”。受事主语句表达的是被动义, 在表达被动义时, 受事主语句又可以分为有标记的和无标记的, 其中有标记的也被称为“被动句”, 有标记的被动句和无标记的被动句通常可以互相转换。(龚千炎, 「现代汉语里的受事主语句」, 『中国语文』, 1980(5):335-344.)

17) 본문(5)의 예문은 蔡淑美, 赵新华(2015)에서 참고하였다.

- ㄴ. 피동문: a. 苹果被我吃了。(사과가 나에게 먹혔다.)
 b. 苹果被吃了。(사과가 먹혔다.)
 c. 苹果, 我吃了。(사과, 내가 먹었다.) (화제문)
- ㄷ. 대상자 주어문: a. 苹果吃了。(사과를 먹었다.)
 b. 苹果吃完了。(사과를 다 먹었다.)
- ㄹ. 중간 구문: 苹果吃起来很甜。(사과 맛이 아주 달다.)

(5ㄱ)의 ‘我’는 행위 ‘吃’의 행위자로서 문장의 주어 위치에 출현하므로 능동문에 속하는데 각 성분의 배열 순서를 바꾸면 (5ㄴ), (5ㄷ), (5ㄹ)와 같은 전혀 다른 의미 관계가 도출된다. 고립어에 속하는 중국어에 단어의 형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문장 내 각 성분들의 의미 관계는 어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ㄴ)에서는 피행위주(苹果)가 수동자가 되어 주어 자리로 이동하면서 통사적으로 ‘被’자 표지의 출현 유무에 따라 전형적인 피동문 ‘苹果被我吃了’와 행위주가 생략한 피동문 ‘苹果被吃了’ 구문과 ‘被’자 표지가 함축된 화제문 ‘苹果, 我吃了’ 구문으로 나눈다. ‘苹果, 我吃了’ 즉 ‘사과, 내가 먹었다’ 구문의 문장성분은 화제(苹果/사과)와 평언(我吃了/내가 먹었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행위자 ‘我’가 출현하여 ‘吃’의 동작이 대상자 ‘苹果’에 미치는 사건이 묘사되고 있으며 대상자 뒤에는 일정한 휴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화제문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중간 구문과 비교를 해보면 (5ㄴ)의 피동문에서는 주로 ‘被’ 표지가 출현되는데 중간 동사 ‘吃’ 뒤에는 ‘起来’¹⁸⁾표지가 출현된다. ‘起来’표지가 중간 구문에서 동사

18) <现代汉语词典>에 제시된 ‘起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동사와 방형동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사 ‘起来’의 기본 의미는 ‘기상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형동사 ‘起来’의 경우는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1) 동사 뒤에 출현하여 위로 향함을 나타낸다. 예) 她抱着毛巾缓缓地站起来。(그녀가 수건을 안고 천천히 일어났다.) 2)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서 동작 및 상황의 시작과 지속을 나타낸다. 예) 听我讲完后, 他大笑起来。(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크게 웃기 시작했다.) 3) 동사 뒤에서 동작 완성 또는 목적의 도달을 나타낸다. 예) 球队已经组织起来了。(팀이 이미 조직되었다.) 4) 동사 뒤에서 어떤 한 부분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俄语真正学起来并不难。(실제로 러시아어는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 5) 가설,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예) 他们要是问起

뒤에 붙어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예측을 나타낸다. 행위자의 함축 여부 측면에서 보면 피동문은 행위자의 명시나 함축이 다 가능한 반면 중간 구문 ‘苹果吃起来很甜’에서는 행위자가 통사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의미적으로만 실현될 뿐더러 함축된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는 점, 부사어 ‘很甜’이 추가되었다는 점, 현재시제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피동문은 동작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중간 구문은 주어 자리로 승격된 대상자(苹果)의 속성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

(5c)의 대상자 주어문은 서술어 동사의 행위자가 아닌 대상자가 주어 위치에 출현하였으며, 각각 단일 동사 ‘吃’, ‘V+ 결과보어’형식의 ‘吃完’이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대상자 주어문은 대상자의 상태나 결과를 표현하는 반면 중간 구문은 사물의 속성을 표현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주어문은 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중간 구문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행위자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 두 가지 구문이 공통성을 가지지만 한정성 및 비한정성이라는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의 구분을 다음 <표1>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	중간 구문
표지	‘被’필수 (화제문 제외)	무표지	‘V 起来’, ‘好/容易/难 V’ 등
행위주 특성	명시/암축, 한정성	함축적, 한정성	함축적, 한정성
의미 초점	사건 수행	상태 결과	속성 잠재성

<표1> 중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의 구분

来, 我们怎么说?(그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표1>에서 ‘표지’, ‘행위주 특성’, ‘의미 초점’ 세 가지 측면에서 출발하여 중국어 중간 구문과 유사 구문의 차이를 통해 중국어 중간 구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 구문에서는 행위자가 함축되어 있으며 임의적이나 총칭성을 지닌다. 이미 발생한 특정한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총칭성과 비사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간 동사는 상태성의 특징을 가진다. 더불어 동사를 수식하면서 주관적인 평가나 예측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가능요소도 필수적이다.

3. 한·중 중간 구문의 통사론적 대조 분석

앞의 제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중간 구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에도 하나의 문법 범주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언어 간의 중간 구문은 모두 비한정적이며 함축된 행위자에 의해 주어의 내재적 속성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 구문의 통사적 구조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어의 중간 구문은 크게 ‘起来’ 구문과 ‘好+V’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중간 구문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문은 ‘起来’ 구문이다. 이에 본 장절에서는 한국어 ‘NP+AP+V’ 중간 구문과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을 전형적인 중간 구문 형식으로 분류하여 ‘NP, AP, V’의 순서대로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한·중 중간 구문의 NP 성분 대조 분석

남수경(2012), 백정화(2018), 김기혜(2018, 2019), 김영일(2020)¹⁹⁾등에서

19) 남수경, 「‘-히-’계 접미사 구문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어 가능 피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시한 예시를 활용하여 먼저 한국어 중간 구문의 NP 성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6) 가. 이 종이는 잘 접힌다. (동작의 대상)
- 나. 이 문은 잘 열린다. (동작의 대상)
- 다. 이 책은 잘 읽힌다. (동작의 대상)
- 르. 그 문은 잘 닫힌다. (동작의 대상)
- 미. 그 나물은 잘 씹힌다. (동작의 대상)
- 바. 이 칼은 잘 썰린다. (도구)
- 사. 이 믹서기는 잘 갈린다. (도구)
- 오. 그 세탁기는 잘 빨린다. (도구)
- 자. 그 수세미는 잘 닦인다. (도구)

예문(6) NP의 의미역을 살펴보면, 예문(6가-미)에서 NP의 의미역은 대상이며, 즉 주어는 술부 내용이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즉(6가)에서의 ‘이 종이’는 ‘잘 접힌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대상이며 (6나)에서의 ‘이 문’은 ‘잘 열린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대상이다. 하지만 예문 (6바-자)에서는 ‘NP’의 의미역은 대상이 아닌 도구이다. 일례로 ‘이 믹서기’가 잘 갈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 믹서기’를 도구로 사용할 때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과, 바나나, 야채’ 따위가 잘 갈린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국어 중간 구문에서 주어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과 도구 이 두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문법적 관계를 실현하는 방식은 주로 조사와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

으로」, 『한국어 의미학』, 2012(37):77-102.

백정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피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기혜, 「한국어 비전형적 피동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기혜,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의 특성 연구」, 『반교어문연구』, 2019(52):57-85.

김영일, 「한국어 문법론에서 중동태의 설정을 위하여」, 『한말연구』, 2020(55):35-73.

지는데 한국어 중간 구문의 주어 자리에 위치한 행위주 명사 앞과 뒤에 지시 관형사 ‘이’, ‘그’²⁰⁾와 주제표지 ‘은/는’이 붙는다. 지시 관형사의 결합과 관련된 설명은 천호재(2002)²¹⁾에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는 ‘노란 신호등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인다’와 같은 주어의 내재된 일반적 특성이 예외 없이 발휘될 수 있는 구문이 지시 관형사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김영일(2020)²²⁾은 예문(6)에서 지시 관형사 ‘이’, ‘그’가 없이 ‘종이^는’, ‘문^은’, ‘책^은’, ‘나무^은’, ‘칼^은’, ‘믹서기^는’, ‘세탁기^는’, ‘수세미^는’ 등으로 시작하는 구문은 전칭적 총칭이나 존재적 총칭을 갖는데 이러한 총칭성은 명사구의 총칭성이라고 하였으며 문장의 총칭성을 표현하는 중간 구문과 다르다고 하였다. 즉 ‘이 종이는 잘 접힌다’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이’라는 범주 전체가 적용되는 보편적 속성이 아니라, 특정한 ‘이 종이’가 지니고 있는 한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제표지 ‘은/는’이나 주격조사 ‘이/가’의 선택에 있어서 김영일(20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자는 담화상황에서 자신이 당면한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일정한 것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술어를 선택할 때 ‘은/는’을 사용하고, 술어가 일정한 것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주어를 선택할 때 ‘이/가’를 사용한다.

- (7) 가. 이 종이^는 잘 접힌다. (동작의 대상)
 나. 그 세탁기^는 잘 빨린다. (도구)
 다. *이 종이^가 잘 접힌다. (동작의 대상)
 르. *이 세탁기^가 잘 빨린다. (도구)

예문(7)의 경우를 보면, 주어는 지시 관형사 ‘이’와 결합하여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된 배경 지식을 나타낸다. 이는 발화 상황에서 이미 전제된 대상으로, 화자는

20) 김영일(2020)에 따르면, 지시 관형사 ‘저’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에 인지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친숙하지 않게 느껴진 것 때문에 선행 연구의 예문에 ‘저’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21) 천호재, 「한국어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2002.

22) 김영일, 「한국어 문법론에서 중동태의 설정을 위하여」, 『한말연구』, 2020(55):35-73.

이를 화제로 설정한 상태에서 술어부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가 이처럼 고정된 정보 구조 하에서 술어를 선택할 때, ‘이 종이’나 ‘그 세탁기’와 같은 명사구가 주제표지 ‘은/는’과 결합할 수 있으나 주격조사 ‘이/가’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예문(7ㄱ)에서 주어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이며 예문(7ㄴ)에서 주어의 의미유형은 도구이다. 이처럼 주어는 동작의 대상이나 도구라는 의미 역할을 지니는 경우에 주제 표지 ‘은/는’과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화제화된 주어에 대한 새로운 술어 정보가 뒤이어 전개된다.

다음은 중국어 중간 구문의 NP 성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北京语言大学BCC말뭉치’에서 ‘수동자+起来’ 구문 형식으로 검색해 본 결과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에서 NP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과 도구, 장소, 시간/상황, 결과 등 아주 다양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³⁾

- (8) ㄱ. 这台电脑操作起来很方便。(동작의 대상)
(이 컴퓨터는 작동하기가 편리하다.)
- ㄴ. 这个案子调查起来不会太顺利。(동작의 대상)
(이 사건은 수사하기가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 ㄷ. 原来那只钢笔写起来十分流畅。(도구)
(원래 그 만년필은 쓰기가 아주 부드러웠다.)
- ㄹ. 毛毯盖起来又软又暖和。(도구)
(이 담요는 덮기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 ㅁ. 四合院住起来舒适又方便。(장소)
(사합원은 살기가 편안하고 편리하다.)
- ㅂ. 温度太高的房间呆起来并不舒服。(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방은 편하지 않다.)
- ㅅ. 雪天开起来路滑比较危险。(시간/상황)
(눈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 운전하기 위험하다.)

23) 본문(8)의 예문은 장염(2019)에서 참고하였다.

- . 雾天飞起来不易。(시간/상황)
(안개 낀 날씨에 날아오르기가 쉽지 않다.)

예문(8ㄱ,ㄴ)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 자리에 차지한 ‘这台电脑’, ‘这个案子’는 각각 중간 동사 ‘操作’, ‘调查’의 수동자이며 대상이다. 예문(8ㄷ,ㄹ)에서 ‘原来那只钢笔’, ‘毛毯’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이 아닌 도구이다. 이 볼펜을 도구로 글씨가 잘 쓰진다는 속성, 이 담요로 몸을 덮을 때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속성을 가진다. NP의 의미영역이 대상과 도구라는 점에 한국어와 중국어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예문(8ㄱ-ㅇ)처럼 중국어 중간 구문에 NP의 의미영역은 장소와 시간도 나타낸다. 예문(8ㄱ,ㄴ)에서는 주어 ‘四合院’, ‘温度太高的房间’의 의미유형은 뒤에 오는 동사 ‘住’, ‘呆’의 장소이며 사합원이라는 장소에서 지내면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 온도가 높은 방이라는 장소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예문(8ㄷ,ㄹ)에서는 주어의 의미영역은 시간 및 상황이다. 눈이 오는 날에 운전하기가 위험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눈이 오는 날은 운전하는 시간 및 상황이다. 邓云华, 尹灿(2014)²⁴)은 베이징대학교 CCL 말뭉치를 이용하여 중국어 중간 구문의 주어의 의미유형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중간 구문의 주어가 동작의 대상인 것이 양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 외에 주어의 의미유형이 시간, 상황, 도구, 장소인 경우도 일정한 양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 중간 구문의 NP성분은 동작의 대상 및 도구라는 의미역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중국어 중간 구문의 경우가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처소, 시간, 상황이라는 의미역 유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교착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중간 구문에서는 주어 앞에 지시 관형사 ‘이/그’의 수식을 받는 경우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제표지 ‘은/는’과 결합하여 술어부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邓云华,尹灿,「英汉中动句主语语法等级的比较研究」,『上海外国语大学学报』,2014(37): 83-91.

2) 한·중 중간 구문의 AP성분 대조 분석

중간 구문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구문 형식으로서 한국어 중간 구문에 부사어는 필수적이다. 김푸른슬(2016)²⁵⁾에서 는 중간 구문에서 부사어의 실현이 필수적인 이유는 주어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속성’ 혹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기술할 때 결정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백채원(2017), 김지혜(2018), 김영일(2022)²⁶⁾은 여러 논의에 걸쳐 한국어 중간 구문에서 AP성분인 부사어의 실현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으로 다루어 왔다.

- (9) 가. 이 줄은 **잘** 풀린다.(동작의 대상)
 가'. 이 줄은 풀린다.
 나. 그 나무는 **잘** 꺾인다. (동작의 대상)
 나'. 그 나무는 꺾인다.
 다. 이 믹서기는 **잘** 갈린다.(도구)
 다'. *이 믹서기는 갈린다.
 르. 그 수세미는 **잘** 닦인다.(도구)
 르'. *그 수세미는 닦인다.

예문(9가-르)에서 상태 부사 ‘잘’이 실현되어 있는데 (9가,나)에서 주어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이며 (9다,르)에서 주어의 의미유형은 도구이다. 주어의 의미유형과 상관없이 상태 부사 ‘잘’과의 공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잘’과 공기한 예문들을 보면 ‘잘’의 수식을 받는 동사구는 동작성에서 상태성으로 바뀌어 ‘잘’과 동사의 결합이 주어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낸다. 즉 ‘풀린다’,

25) 김푸른슬, 「한국어 중간구문에서 요구되는 부사어」, 『개신어문연구』, 2002(38):211-239.

26) 백채원,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지혜, 「한국어 비전형적 피동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영일, 「한국어 문법론에서 중동태의 설정을 위하여」, 『한말연구』, 2020(55):35-73.

‘겪인다’, ‘갈린다’, ‘닭인다’ 등 타동사에 파생 접미사가 붙인 구문은 사건을 서술하는 반면 ‘잘 풀린다’와 같이 ‘잘’과 공기하면 전체 문장이 사건이 아닌 속성을 서술하게 된다.

김지혜(2019)²⁷⁾에서는 예문(9ㄱ~ㄴ)와 같이 주어가 대상과 도구의 의미 역인 문장은 방식 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청자에게 정보적 기여를 할 수 없는 무용한 문장일 것이라며 어색한 문장이 된다고 했다. 예컨대, ‘줄이 풀리는 것’, ‘나무가 꺾이는 것’, ‘믹서기로 무엇인가를 가는 것’, ‘수세미로 무엇인가를 닦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므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청자에게 정보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비문일 것이다. 또한 상태 부사 ‘잘’과 결합하지 않으면 주어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므로 중간 구문의 총칭성과 맞지 않다.

상태 부사 ‘잘’ 외에도 주어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난이부사 ‘쉽게’, 부정부사 ‘아니’ 등과의 공기도 허용된다. 그러나 ‘저절로’와 같은 자발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삽입된 문장의 경우, 비문법적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²⁸⁾

- (10) ㄱ. 이 빗자루는 쉽게 쓸린다.
 ㄴ. 이 빗자루는 잘 안 쓸린다.
 ㄷ. 이 빗자루는 잘 쓸리지 않는다.
 ㄹ. *이 빗자루는 저절로 쓸린다.

예문(10ㄱ)에서는 중간 동사가 난이부사 ‘쉽게’와 공기한 경우이며 예문(10ㄴ, ㄷ)에서는 부정부사 ‘안-’, ‘-지 않다’와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문(10ㄴ, ㄷ)은 빗자루가 전혀 쓸리지 않는다는 의미와 달리 수행 가능성의 빈도 차이를 대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예문(10ㄹ)의 경우는 주어의 동작

27) 김지혜,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의 특성 연구」, 『반교어문연구』, 2019(52):57-85.

28) 본문(10)의 예문은 김푸른솔(2016)에서 참고하여 변형시켰다.

이나 상태 변화가 행위주 없이 저절로 발생함을 나타내는 부사 ‘저절로’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는 중간 구문에는 의미적으로 행위주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으며, 주어가 비한정적 다수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잘’, ‘쉽게’ 등의 난이부사 및 ‘안-’, ‘-지 않다’ 등의 부정 부사는 한국어 중간 구문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며, 이들 부사에 의해 수식된 동사구는 동작성에서 상태성으로 전환됨으로써, 화용론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중국어 중간 구문의 AP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에서 AP 구성요소는 한국어 중간 구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적 성분과 달리,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행위가 아닌 상태 또는 평가적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실현된다. 曹宏(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음절 및 이음절 형용사의 단순 형식(简单形式)과 형용사 중첩 형태의 복합 형식(复杂形式)은 물론, 의성의태어나 관용적 표현과 같은 다양한 형용사적 표현이 모두 중국어 중간 구문의 AP 위치에 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9)

- (11) 가. 这个辣椒吃起来很辣。
(이 고추는 상당히 맵다.)
나. 任何事情都是说起来容易, 做起来难。
(무슨 일이든 말하기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다. 巧克力饼干嚼起来脆脆的。
(초코 과자가 바삭바삭하다.)
리. 这间餐厅看起来干干净净的。
(이 식당은 깨끗해 보인다.)
목. 这辆大破车开起来叮咣三响的。
(이 낡고 허름한 차는 운전하면 덜컹거리고 삐걱거린다.)

29) 본문(11)의 예문은 北京语言大学BCC 말뭉치에서 참고하였다.

예문(11ㄱ, ㄴ)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의 단순 형식 즉 ‘辣(맵다)’, ‘容易(쉽다)’, ‘难(어렵다)’와 같은 성분이 중간 구문 동사 V+起来 뒤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曹宏(2004)은 ‘简单(간단하다)’, ‘容易(쉽다)’, ‘难(어렵다)’와 같이 난이도를 표시하는 의미유형의 형용사들은 예문(11ㄴ)의 ‘V1+起来+A1, V2+起来+A2’와 같은 대립적 병렬 구조에서만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문(11ㄷ, ㄹ, ㅁ)는 형용사의 복합 형식이 중간 구문에 적용한 경우이다. 朱德熙(1982)³⁰⁾에서 형용사의 복합 형식을 ‘小小的、干干净净、稀里糊涂’와 같은 형용사 중첩형식과 ‘热乎乎、老实巴交、冰凉、通红’과 같은 형용사의 앞과 뒤에 다른 부속 성분이 들어온 형식, ‘很好、挺高、非常漂亮、那么长’과 같은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어절 등으로 나누었는데 세 가지 형용사의 복합형식은 모두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고 평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중간 구문의 AP 성분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했던 모든 형용사들이 AP가 어떤 문장성분을 의미 지향하는가에 따라 중간 구문과 부합하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³¹⁾

- (12) ㄱ. 这首歌细听起来**很美**。(AP → 주어)
 (이 노래는 자세히 들으면 아름답다.)
 ㄴ. 这件夹克穿起来**有点大**。(AP → 주어)
 (이 자켓은 입어보니 조금 크다.)
 ㄷ. 这种文章写起来**很辛苦**。(AP → 함축된 행위자)
 (이런 글을 쓰기가 힘들다.)
 ㄷ'. *这种文章写起来**很小心**。(AP → 함축된 행위자)
 (이런 글은 쓰기가 소심하다.)
 ㅁ. 这辆车开起来**很舒服**。(AP → 함축된 행위자)

30)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31) 본문(12)의 예문은 李知玟(2008)에서 참고하였다.

- (이 차는 운전해보면 편안하다.)
 口. *这辆车开起来很认真。(AP → 함축된 행위자)
 (이 차는 운전해보면 진지하다.)
 乙. 专业课教起来非常困难。(AP → 동사V)
 (전공수업은 가르치기에는 특히 어렵다.)
 入. 高度酒喝起来很爽。(AP → 동사V)
 (높은 도수의 술은 마시면 깔끔하다.)

예문(12)에서는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을 형용사 AP가 문두의 피동자 NP를 지향하는 경우, 통사적으로 출현하지 않은 행위자 NP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 중간 동사 V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로 세분화된다.³²⁾ 이 중 피동자 주어 NP를 의미 지향하는 형용사는 대부분 중간 구문 수용이 가능한 반면,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 (12ㄷ, 口)의 ‘小心’, ‘认真’ 등 형용사는 중간 구문에 제약을 보인다. 이에 관해 袁毓林(1993)³³⁾은 ‘小心’, ‘认真’, ‘细心’, ‘严肃’ 등 형용사는 인간의 의지적 통제 가능한 정상형용사를 자주 형용사(自主形容词)라 정의하고 예문(12ㄷ, 口)에서의 ‘辛苦’, ‘舒服’와 같은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비의지적 상태 형용사를 비자주 형용사(非自主形容词)으로 유형화하였다. 동시에 AP가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 비자주 형용사(非自主形容词)만이 중간 구문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에서 형용사 AP 부분이 주어 NP 또는 동사 V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에 형용사의 단순 형식 및 형용사구, 사자성어나 관용어 등 모든 복합 형식의 수용이 가능한 반면 AP 부분이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 비자주 형용사만이 중간 구문 진입이 허용된다.

32) 李知玆, 「현대 중국어 ‘NP+V起来+AP’ 형식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2008(52):109-130.

33) 袁毓林, 『现代汉语祈使句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3, p.120-121.

3) 한·중 중간 구문의 V성분 대조 분석

한국어의 중간 구문의 동사 이른바 중간 동사³⁴⁾의 형태는 인도-유럽어에서와 같은 재귀형태를 포함하지 않으며, 영어에서 타동사가 형태 변화 없이 중간 구문에 직접 쓰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등과의 결합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천호재(2002)³⁵⁾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트럭은 잘 움직인다’와 같은 중간 구문 동사 형태가 기저 타동사형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중간 동사 범주에 포함된다³⁶⁾.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³⁷⁾

- (13) 가. 이 창문은 잘 열린다.
 나. 이 종이는 잘 접힌다.
 다. 이 핸드폰은 잘 팔린다.
 리. 이 양파는 잘 벗긴다.
 모. 이 볼펜은 잘 써진다.
 바. 이 칼은 잘 안 잘라진다.
 사. 이 충전기는 빨리 충전된다.

34) 중간 동사에 대한 한국어 용어로서는 중립동사(이은령·윤애선, 2005), 중동(남수경, 2011), 촉진 동사(Park, 1994)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중간 동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35) 천호재, 「한국어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2002.

36) 한국어 중간 동사 구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형태적 측면에서 1) 사동, 수동의 접사가 첨가된 중간 동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연재훈, 1989; 강정연, 2013), 2) 사동, 수동의 접사가 첨가된 중간 동사만을 포함시킨 연구(Park, 1994; 한송화, 2020), 그리고 3) 타동사형과 동일한 형태의 중간 동사와 사동, 수동의 접사가 첨가된 중간 동사를 모두 중간 동사로 포함시킨 연구(천호재, 2002; 남승호, 2003; 남수경, 2011)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영미, 「한국어 중간동사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2015(59):109-128.) 본고는 세 번째 관점을 취하여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7) 본문(13)예문은 서영미(2015)에서 인용하였다.

- ㅇ. 이 차는 잘 멈춘다.
 ㅈ. 이 트럭은 잘 움직인다.
 ㅊ. 이 종은 잘 울린다.

예문(13ㄱ-ㄴ)의 ‘열리다’, ‘접히다’, ‘팔리다’, ‘벗기다’는 피동 접사 ‘-이-/-히-/-리-/-기-’가 결합된 중간 동사로 형태상 피동문과 동일하다. 이들이 단독으로는 피동문과의 범주 분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수동자 주어, 행위자 함축, 주어 속성 서술어라는 통사-의미적 특성으로 구별된다. 예문(13ㄱ, ㄴ)은 중간 동사에 ‘-아/어 지다’ 형식으로 된 구문이지만 도구인 ‘볼펜’과 ‘칼’의 속성을 기술하며, 예문(13ㄷ)은 ‘서술성명사+되다’로 도구인 ‘충전기’의 기능적 속성을 표현한다. 한편, 서술성명사 + ‘-당하다’, ‘-받다’도 있지만 대부분 주격에 유정물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동사 ‘지다’나 ‘되다’가 무정물을 주격으로 하는 것과 상반되므로 무정물 허용이 핵심인 중간 구문과 상충된다.³⁸⁾ 예문(13ㄱ-ㄷ)에서의 ‘멈춘다’, ‘움직인다’, ‘울린다’는 기본 타동사 형태의 중간 동사로 주어가 함축된 행위자에 의한 ‘잘 멈춘다/움직인다/울리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간 구문 범주에 포함된다.

의미적 측면에서 서영미(2015)³⁹⁾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중간 동사의 의미적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역 구문 환언, 암시적 행위자 존재와 총칭적 해석, 상태성, 피영향성 그리고 부사수식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중간 구문 ‘이 종은 잘 울린다’, ‘이 차는 잘 멈춘다’ 등은 중간 동사의 타동 구문인 ‘누군가가 이 종을 울리게 하였다’, ‘누군가가 이 차가 멈추게 하였다’와 같이 ‘-게 하다’라는 의미의 사역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누구라도 이 종을 잘 울릴 수 있다’는 총칭적 해석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 행위자를 의미상 함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시간대의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중

38) 김영일, 「한국어의 피동과 비피동 - 피동문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2024(46):1-16.

39) 서영미, 「한국어 중간동사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2015(59):109-137.

간 동사는 사건성이 배제된 상태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제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진행형, 단순 반복 현재시제 등의 구체적 시제 형태로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이 비누는 찬물에 잘 풀린다’와 같은 구문에서 비누는 행위에 의해 녹아서 잘 풀리는 영향을 받는 피영향성 논항으로서 중간 구문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에서의 중간 구문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보다 행위자의 속성이나 기능과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중간 동사와 상태부사 ‘잘’, 난이부사 ‘쉽게’, 부정부사 ‘아니’등과의 결합이 허용된다.

다음으로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의 ‘V起来’ 성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각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V起来’에서의 ‘起来’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향, 결과의 기능 외에 문법화 과정을 거쳐 평가로 기능이 확장되어 전체 구문이 특정 동작이 아닌 상태적으로 안정성을 지닌 속성을 표현하도록 전환되었다. ‘起来’선행 동사 V에 대해 曹宏(2004)⁴⁰⁾은 오직 행위주의 의지적 통제가 가능한 자주 동사(自主动词)⁴¹⁾만 중간 구문 수용이 허용되며, 의지력이 없는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비자주 동사(非自主动词)⁴²⁾는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자주 동사(自主动词)는 동작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포함하여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비자주 동사(非自主动词)는 사람의 주관적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객관적으로 동작, 행위,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동작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⁴³⁾

(14) ㄱ. 这台电视**安装**起来不费劲。

(이 텔레비전은 설치하기가 힘들지 않다.)

ㄴ. 这些盘子**刷**起来很费时间。

(이 접시들은 닦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40) 曹宏, 「论中动句的层级结构和语法关系」, 『语言教学与研究』, 2004(5):42-51.

41) 自主动词是指表示有意志力的动作行为的动词, 即这些动词所表示的动作行为是由动作者的自我意志发出的。如: ‘吃’, ‘看’, ‘打听’, ‘学习’, ‘研究’, ‘休息’等。

42) 非自主动词是指表示无意志力的动作行为的动词。如: ‘看见’, ‘听见’, ‘丢失’, ‘跌倒’等。

43) 본문(14)의 예문은 北京语言大学 BCC 말뭉치에서 인용하였다.

- ㄷ. 专业课学习起来枯燥乏味。
 (전공 과목은 배우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 ㄹ. 这些老兵领导起来不容易。
 (이 베테랑 군인들은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
- ㄱ. *跑步的时候, 腰闪起来很容易。
 (달리기를 할 때 허리를 빼끗하기 쉽다.)
- ㄴ. *公共汽车上, 钱包丢起来很容易。
 (버스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기 쉽다.)
- ㄷ. *第二次世界大战爆发起来很快。
 (제2차 세계대전은 발발하기가 매우 빨랐다.)

예문(14ㄱ-ㄹ)중의 동사는 자주 동사 즉 自主动词이며 예문(14ㄱ-ㄷ)의 동사는 비자주 동사, 즉 非自主动词이다. 예문(14ㄱ-ㄷ)의 ‘闪’, ‘丢’, ‘爆发’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비자주 동사이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되듯, 자주 동사는 ‘起来’ 구문 수용이 가능하나 비자주 동사는 ‘起来’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马庆株(1988)는 ‘来/去 + V + O’ 구문 수용 여부로 자주 동사와 비자주 동사를 구분하는데 예문(14ㄱ)의 ‘来闪腰了’(*허리를 빼끗하러 왔다), ‘去闪腰了’(*허리를 빼끗하러 갔다)가 비문인 반면 예문(14ㄱ)의 ‘来安装了’ (설치하러 왔다), ‘去安装了’ (설치하러 갔다)는 정문으로 입증된다. 뿐만 아니라 曹宏(2004)은 ‘爱’(사랑하다), ‘恨’(미워하다), ‘喜欢’(좋아하다), ‘厌恶’(혐오하다)와 같은 심리동사⁴⁴⁾와 술보구조(述补结构)의 동사들도 중간 구문 진입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⁴⁵⁾

- (15) ㄱ. *坏人厌恶起来很难。(심리동사)

44) 心理动词是表示人类心理活动的一类特殊动词, 具有区别于其他动词类的语法特征。这类动词既可接体词性宾语(如‘想他’), 也可接谓词性宾语(如‘想玩’)。同时能受程度副词修饰并保持带宾语能力, 如“非常喜爱”仍可接宾语。

45) 본문(15)의 예문은 北京大学CCL语料库에서 참고하였다.

- (나쁜 사람을 싫어하기가 어렵다.)
- ㄴ. * 妈妈**爱**起来很容易。(심리동사)
(어머니를 사랑하기가 매우 쉽다.)
- ㄷ. * 畅销书**享受**起来很过瘾。(심리동사)
(베스트셀러를 즐기기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 ㄹ. * 塑料轮胎**磨平**起来很容易。(술보구조)
(플라스틱 타이어가 납작하게 닳기가 쉽다.)
- ㄹ. * 房子**烧毁**起来很快。(술보구조)
(집이 타서 무너지기가 빠르다.)
- ㅂ. * 快递**拆开**起来很麻烦。(술보구조)
(택배를 뜯기기가 번거롭다.)

예문(15ㄱ-ㄷ)에 나오는 ‘厌恶’, ‘爱’, ‘享受’ 등은 인간의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 심리동사로서, ‘来/去 + V + O’구문에 쓰일 수 없으며 자주 동사(自主动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 중간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예문(15ㄹ-ㅂ)의 동사 ‘磨平’, ‘烧毁’, ‘拆开’ 등은 술어 뒤에 보어가 따르는 술보구조이므로 마찬가지로 중국어 중간 구문에 쓰일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어 중간 구문의 중간 동사가 첫째로 자주 동사(自主动词)이어야 한다. 즉 [+의지], [+동작]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孙宜春(2007)은 [+지속가능성]의 특징을 가진 동사만이 ‘NP+V起来+AP’구조에 출현할 수 있고 지속적이지 않은 동사는 중간 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6) ㄱ. * 这件事**告诉**起来很费力。
(이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다.)
- ㄴ. * 这个消息**广播**起来反响很大。
(이 소식을 방송할 때 반응이 매우 컸다.)

예문(16ㄱ)의 동사 ‘告诉’와 (16ㄴ)의 동사 ‘广播’ 등은 자주 동사(自主动词)이지만 [+ 지속가능성] 의미 자질을 지닌 동사는 아니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은 ‘起来’의 원형 의미인 동작 과정 표현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간 구문에서 배제된다.

앞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중국어 전형적인 중간 구문 ‘NP+ V起来+ AP’의 동사는 첫째 의미적 통제가 가능한 자주 동사여야 하며 동시에 [+ 의지성], [+ 동작성] [+ 지속가능성]의 의미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리동사와 술보 구조 동사는 배제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 ‘NP+ AP+ V’중간 구문과 중국어 ‘NP+ V起来+ AP’중간 구문은 의미적 특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사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주어 NP, 부사어 AP, 동사 V의 순서대로 한·중 중간 구문의 공통점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중 중간 구문의 통사적 특징 대조

	한국어 ‘NP+ AP+ V’	중국어 ‘NP+ V 起来+ AP’
주어 NP	동작의 대상/도구 (지시관형사 ‘이/그’와 주제표지 ‘은/는’ 필수)	동작의 대상/도구/장소/방식/시간 및 상황
부사어 AP	① 상태부사(状态副词) 예: ‘잘’ ② 난이부사(难易副词) 예: ‘쉽게’ 등 ③ 부정부사(否定副词) 예: ‘안’, ‘아니’	① 주어를 의미지향한 경우 a) 형용사의 간단형식(简单形式) b) 형용사의 복잡형식(复杂形式) c) 사자성어, 관용어등 ②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지향한 경우 → 非自主形容词(비자주 형용사) 예: ‘辛苦’, ‘疲劳’, ‘舒服’ 등
동사 V	① 사역형태소 ‘-이-/-히-/-리-/-기-’와 결합한 중간 동사 ② ‘-아/어/여 지다’ 와 ‘서술성명 사+ 되다’ 의 형식인 중간 동사 ② 타동사형과 동일한 형태 예: ‘움직이다’ 등	① 自主动词(자주 동사) ② [+ 의지], [+ 동작] [+ 지속가능성] ③ 심리동사와 술보구조(述补结构) 제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 중간 구문은 통사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아낼 수 있다. 첫째, 주어 NP 구성에서 한국어는 동작의 대상이나 도구 이 두 가지 유형만 적용되는 반면 중국어 ‘NP+V起来+AP’ 중간 구문은 동작의 대상, 도구, 장소, 방식, 시간 및 상황 등 다중 의미유형의 주어를 허용한다. 또한 한국어 중간 구문은 주어에 지시관형사 ‘이/그’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주어가 화제이며 술어가 초점 정보라는 의미적 특성상 주제표지 ‘은/는’과 공기한다.

둘째, 부사어 AP 부분에서 한국어는 상태부사 ‘잘’, 난이부사 ‘쉽게’류와 부정부사 ‘안’, ‘아니’ 등이 주로 쓰이나 중국어는 AP의 지향 대상에 따라 제약이 상이하다. 주어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단순 형식이나 복합 형식, 사자성어나 관용어 등 복합 형식도 적용하는 반면 형용사 성분인 AP가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에는 ‘辛苦’, ‘疲劳’, ‘舒服’와 같은 비자주 형용사(非自主形容词)만 출현할 수 있다.

셋째, 중간 동사 V 부분에서 한국어는 피동 접사형 ‘-이-/-히-/-리-/-기-’, ‘-아/어/여 지다’ 결합형, ‘서술명사+ 되다’형, ‘움직이다’, ‘멈추다’와 같은 타동사 기본형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중국어 중간 동사는 심리동사와 술보구조를 제외한 [+의지성], [+동작성] [+지속가능성] 의미 자질을 갖춘 자주 동사(自主动词)만 허용된다.

4. 결론

본고는 한국어 ‘이 종이는 잘 접힌다’와 중국어 ‘这辆车开起来很快’의 형태로 구성된 기저 목적어가 주어 위치에 출현하여 비한정적이며 함축된 행위자에 의해 주어의 총칭적 속성을 나타난 소위 중간 구문에 주목하고, 피동문, 능동문 및 대상자 주어문과 구별되는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였고 ‘NP, AP, V’의 문장 성분에 따라 한·중 중간 구문의 통사론적 특징을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언어의 중간 구문의 범주와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능동문과의 차이, 중국어 중간 구문과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과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한국어 중간 구문은 형식적 측면에서 타동사에 파생 접미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련의 피동 사건이 아닌 피행위주가 가지고 있는 총칭적 속성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피동문과 구별되는 중간 구문의 특성이 뚜렷하다. 중국어 중간 구문은 피행위주가 주어 자리로 승격한다는 점에서 피동문, 대상자 주어문과 공통점을 가지는데 행위자 및 ‘被’자 피동 표지가 명시되지 않는 특징에서 이들과 구분된다.

한국어 ‘NP+ AP+ V’ 중간 구문과 중국어 ‘NP+ V起来+ AP’ 중간 구문의 대조 연구에서는 주어 NP의 의미유형이 동작의 대상이나 도구인 점에 유사점을 가지는데 중국어 중간 구문의 주어 NP의 의미유형은 동작의 대상, 도구, 장소, 방식, 시간 및 상황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중간 구문의 주어 앞에는 보통 지시관형사 ‘이/그’, 뒤에 주제 표지 ‘은/는’과 결합하여 주어의 속성에 대해 평가한다. 부사어 AP 부분에서 한국어는 주로 상태부사 ‘잘’, 난이부사 ‘쉽게’류와 부정부사가 부사어 역할을 취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사어 AP가 주어의 의미 지향하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는데 부사어 AP가 함축된 행위자를 의미 지향하는 경우에는 비자주 형용사(非自主形容词)만 중간 구문에 들어가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간 동사 V에서 한국어의 중간 구문은 피동문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접사 ‘-이-/-히-/-리-/-기-’와 결합한 피동사, ‘-아/어지다’형, ‘서술명사+ 되다’형, ‘움직이다’, ‘멈추다’와 같이 타동사형과 같은 형태의 중간 동사 형식이 존재한다. 중국어에서의 중간 동사가 숫자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심리동사 및 술보구조를 제외한 자주 동사(自主动词)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언어유형론 관점에서 범언어적으로 인정받은 중간 구문이라는 문법 범주가 단순히 능동과 피동의 이분적인 대립 체계보다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參考文獻

1. 서적류

-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서울: 집문당, 2008.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2009.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우인혜, 『우리말 피동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7.
천호재, 『중간구문의 개별 언어분석 및 범언어적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9.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37/1971.
符淮青, 『现代汉语词汇(增订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5.
宋国明, 『句法理论概要』,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2/1997.
王力, 『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1943.
袁毓林, 『现代汉语祈使句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3.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2. 논문류

- 김기혜, 「한국어 비전형적 피동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기혜,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의 특성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52권, 2019.
김영일, 「한국어 피동사 피동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영일, 「한국어 문법론에서 중동태의 설정을 위하여」, 『한말연구』 제55권, 2020.
김윤신, 「국어 총칭 피동문의 유형과 의미」, 『언어학』 제68권, 2014.
김지혜, 「한국어 비전형적 피동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푸른솔, 「한국어 중간구문에서 요구되는 부사어」, 『개신어문연구』 제38권, 2002.
- 김현정, 「양태부사 ‘잘’ 과 한국어 중간태 구문- 일본어·터키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학』 제44권, 2019.
- 남수경, 「‘-히-’계 접미사 구문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어 가능 피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37권, 2012.
- 백정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피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백채원,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시라이시 치에미, 「한일 피동표현의 인지의미론적 대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서영미, 「한국어 중간동사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제59권, 2015.
- 양류, 「중국어‘NP+好+VP’중간구문과 한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인지언어학적관점을 바탕으로」, 『中语中文学』 제90권, 2022.
- 장엽, 김기석,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어“NP+AP+V” 중간 구문과 중국어“NP+V起来+AP” 중간 구문」, 『중국인문과학』 제8권, 2019.
- 천호재, 「한국어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제38권, 2002.
- 曹宏, 「论中动句的层级结构和语法关系」, 『语言教学与研究』 제5권, 2004.
- 陈立民, 「论中动句的范围和结构-兼评曹宏的中动句研究」, 北大中文论坛, 2006.
- 蔡淑美, 赵新华, 「类型学视野下的中动范畴和汉语中动句式群」, 『世界汉语教学』 제29권, 2015.
- 邓云华, 尹灿, 「英汉中动句主语语法等级的比较研究」, 『上海外国语大学学报』 제37권, 2014.
- 戴曼纯, 「中动结构的句法特征」, 『外语学刊』 제4권, 2001.
- 何文忠, 「中动结构的认知阐释」,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 何元建, 「现代汉语中间句的句法结构」, 『汉语学习』 제1권, 2008.
- 胡旭辉, 「跨语言视角下的汉语中动句研究」, 『当代语言学』 제1권, 2019.

- 黄莲花, 赵新建, 赵娜, 「汉韩中动句对比及其成因分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2권, 2016.
- 龚千炎, 「现代汉语里的受事主语句」, 『中国语文』 제5권, 1980.
- 纪小凌, 「英汉中动句研究」, 香港中文大学硕士学位论文, 1995.
- 李知珪, 「현대 중국어 ‘NP+V起来+AP’ 형식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52권, 2008.
- 许艾明, 「基于语料库的英汉中动句式修饰语之对比研究」, 『西安外国语大学学报』 제19권, 2011.
- 余光武、司惠文, 「汉语中间结构的界定-兼论“NP+V起来+AP”句式的分化」, 『语言研究』 제1권, 2008.
- 殷树林, 「“NP+ (状) +V+ 起来+ AP”格式与英语中动句比较」, 『语言教学与研究』 제1권, 2006.

Abstract

A Syntactic Contrastive Study of Korean-Chinese Middle Constructions

Zhang Xi · Yuan Yi

This study aims to actively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grammatical category known as "middle constructions" in both Korean and Chinese, where a base object appears in the subject position, the implied agent is an indefinite plural, and the generic attribute of the subject is described. It first examines the semantic features unique to middle construc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ypical passive sentences and object-subject sentences, and then conducts a component-wise contrastive analysis of the syntactic structures of middle constructions in the two languages.

Focusing on typical Korean middle constructions such as “이 문은 잘 열린다” (lit. “This door opens well”) with the structure "NP+ AP+ VP" and Chinese middle constructions such as “这辆车开起来真快” (lit. “This car drives really fast”) with the structure “NP+ V+ 起来+ AP”, the study conducts a contrastive analysis of their syntactic features based on sentence components (NP, AP, V)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is is significant for promoting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Korean-Chinese middle constructions and providing a new perspective for cross-linguistic contrastive research.

Key words : Korean-Chinese middle constructions, syntactic structure, attribute, genericity, Korean-Chinese contrastive study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

